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6. 6. 16.(목) 9:30	배포일시	2016. 6. 16.(목) 9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주환욱 (044-215-2750)	담당자	이희곤 사무관 (044-215-2751) hglee0607@korea.kr
	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최지영 (044-215-4710)		김승환 사무관 (044-215-4712) mofe@korea.kr
	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이형렬 (044-215-4750)		김상엽 사무관 (044-215-4752) ksy7715@korea.kr
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강영수 (02-2100-2850)		정종식 사무관 (02-2100-2851) tiger440@korea.kr
담당과장	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 변성식 (02-750-6834)	담당자	태현수 사무관 (02-2100-2852) hstae@korea.kr
	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이승현 (02-759-5737)		박완근 차장 (02-750-6755) wankeunpark@bok.or.kr
	금융감독원 거시감독팀장 이범열 (02-3145-8180)		서만호 차장 (02-759-5762) manhos@bok.or.kr
	금융감독원 외환업무팀장 권화중 (02-3145-7928)		김정훈 수석조사역 (02-3145-8181) fovee@fss.or.kr
			정희준 조사역 (02-3145-7929) heejunec@fss.or.kr

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

-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 및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발표 -

□ 6월 16일(목) 8:0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

- 오늘 회의에서는 6월 FOMC 결과 및 영향,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·금융시장 영향, 가계부채 동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,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음

* 참석자 :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,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,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

- 또한, 뉴욕·런던 등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*와의 컨퍼런스콜을 통해 美 FOMC, 브렉시트 관련 현지 동향을 점검하였음

* 뉴욕·런던·홍콩·동경·프랑크푸르트 5개 주요 거점지역 내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를 구축('16.4월, 재경관, 한은·금감원 주재관 등 참여)

→ 기관 간 현지협업 강화, 거금회의와 해외네트워크 간 정보공유 등 연계 강화



【美 6월 FOMC 결과 및 영향】

□ 美 연준은 당초 예상대로 금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였음

- 아울러 FOMC 위원들의 성장률 전망과 금년 이후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음

□ FOMC 결과 발표후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높아지며 美 국채 금리가 하락했으며,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음

* Dow: △0.2%, 美 국채금리(10년물): 1.57(△4bp), (2년물): 0.67(△5bp)
절상률(% 전일비): 유로(0.5), 엔(0.1), 원화NDF 1170.3(한국장 증가대비): △3.0원

- 美 연준은 최근 美 고용지표 둔화, Brexit 가능성 등을 감안 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

【브렉시트 발생시 경제·금융시장 영향】

- 최근 여론조사 결과 **Brexit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Brexit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**
 - Brexit 국민투표 가결시 **금융·실물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세계경제에 중대한 하방 위험요인**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- 최근 주요 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**Brexit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주로 영국과 유럽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**
 - 영국은 **경제·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되며, 유럽 경제도 對英 무역·금융 연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예상**
 - * 英 재무부 분석(2년간) : GDP $\Delta 3.6 \sim \Delta 6.0\%$ 하락, 파운드화 $\Delta 12 \sim \Delta 15\%$ 절하
 - 또한 영국의 EU 탈퇴가 **여타국의 EU 탈퇴 움직임, 주요국 내 반EU 정치세력 증가**로 이어질 경우 **체제 불안정성이 고조**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
 - 유럽 이외 국가들의 경우 **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나, 직접적인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**
 -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**여타국과 비교해 영국과의 무역·금융 연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Brexit 영향이 크지 않은 국가**
- 다만 Brexit 발생시 이후 **상황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,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환·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고조될 수**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**다음과 같이 대응해** 나가기로 하였음
 - ① Brexit 국민투표 전후 **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투표 진행경과,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점검**
 - ② 투표 가결시 **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**
 - * 개표 결과는 우리시간으로 6.24일 14:00시경 발표 예상
 - ③ 국내 **외환·금융시장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상황 단계별 대응계획(컨틴전시 플랜)에 따라 적기 안정조치를 추진**

【최근 가계부채 동향】

-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**향후 대응방향**을 논의하였음
 - **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중**
 - * 은행 주담대 증가율(% , 전년동기비) : (13) 3.4 (14) 11.1 (15) 9.9 (16.1Q) 8.5
 - ** 금년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%가 분할상환 방식
 -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**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, 분양예정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대출 증가세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**
 - 제2금융권은 저금리 등으로 **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**
 - *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(% , 전년동기비) : (13) 7.6 (14) 8.3 (15) 9.5 (16.1Q) 11.7
- 가계부채의 **질적 구조개선** 등을 통한 **리스크 관리**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, **대출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·부문에 대한 관리**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

【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】

-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**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편**하였음
 - 선물환포지션 제도 한도를 소폭 상향 조정하고, **외화건전성 부담금의 효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**
 - 은행 대상 **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**을 '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·불필요한 규제 등은 폐지

< 별첨 >

1. 거시경제금융회의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
2.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
3.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규제도입 방안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

별첨 1

거시경제금융회의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

1 추진배경

◇ 글로벌 환경 급변 → 신속·정확한 현지정보 공유체계 구축 필요

- 최근 글로벌 경제·금융상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
→ 해외 현지의 심도있는 정책, 시장관련 정보 확보가 중요

2 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

① 뉴욕 등 5개 거점지역에 해외 현지네트워크(재경관 간사) 구축

- 뉴욕, 런던, 프랑크푸르트, 동경, 홍콩 5개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여 거시경제금융회의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
 - 5개 거점지역 재경관(간사)이 관계기관 주재관, 국제금융센터(뉴욕) 등과 네트워크 구축(필요시 금융기관도 참석)
-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, 주요 이벤트 발생시 수시 개최하여 동향 점검
 -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별로 유연하게 운영하여 현지 주재원 부담을 최소화

② 현지 내 협업 강화 + '거금회의-해외 네트워크 간' 연계 강화

- (현지협업 강화) 해외 네트워크별로 현지 경제·금융상황 및 정책이슈 점검 → 신속·정확한 현지정보 공유체계 구축
- (국내연계 강화) 거시경제금융회의와 해외 네트워크 간에 쌍방향 협력채널 활성화 → 정책 활용도 제고
 - (해외→국내) 재경관이 네트워크별 현지 동향·정책 이슈 점검결과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
 - *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, 美 FOMC 등 글로벌 경제·금융 이벤트관련 보고는 컨퍼런스 콜 등을 활용
 - (국내→해외) 국내 현안 및 정책수요 정보 등을 상시 제공